

建築家の 社会的 使命

柳 承 根

序言

연구나 創造의 目的은 存在에 對한 勝利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즉 改革만이 그 最後 目的이어야 한다. 모방이나 표절은 既存에 對한 繼承이며, 偽善的 創造인 것이다.

建築이란 無에서 有로 나타나는 造型의 自然에 對한 도전이 아니라, 人間을 爲한 人間에 依한 生活空間으로서 自然에 對한 順應이며, 人間生活에 奉仕하는 純粹한 精神的 創造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的 建築은 外形의 變化나 內面的 蒐集·整理가 아니다. 現代建築의 哲學은 오늘의 科學과 藝術의 潮流에 融化되어 現代建築의 發展과 純粹한 精神的 Idea의 成長力에 對한 革新이다.

人間生活의 自由, 平等, 權利를 拘束, 沮害해서도 안된다. 이 모든 것을 指導하는 것이 建築家라는 天職이며 同時에 建築家의 義務이며 權利인 것이다.

社會는 人間個個人的 集團의 生活活動의 結晶体이며, 그들의 社會的 活動에 있어서의 責任, 義務, 權利에 依하여 發展하는 것이며, 이에 依하여 그 結果는 社會文化의 尺度로 露呈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建築家는 思想家이며, 政治家이며 社會的 指導者이어야 한다는 所以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建築家의 社會的 使命은 社會文化 發展의 絕對로 重要한 要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社會가 建築家에게 要求하는 自負心이며 Moral 이기도 한 것이다.

展을 이룩하였다. 人間 個個人的 生活에 自身の 使命을 奉仕하였으며 그들은 個人을 하나의 큰 社會的 側面에서 하나의 構成員의 一部分으로 보았다. 이러한 社會理念은 自己中心의 主役의 建築家의 作品과 아주 對照인 것이었다. 이들은 自己의 個人的 好奇心을 建築主에게 強要시켜 自己만의 美의 Monument로 造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社會와 우리가 希求하는 새로운 建築은 [새로운 樣式] 이 아니라 [새로운 Approach]인 것이다.

우리는 生活의 轉換期에 살고 있다. 生活構造의 變化, 生活手段의 轉換, 生活理念의 變化는 社會構造의 變化를 가져왔으며, 科學文明의 혜택으로 지난날의 社會는 進化되었고, 人間尊重의 思想, 人間回復의 生活哲學은 새로운 生活空間을 摸索하고 있는 것이다. 生活의 變化에 따라 表現의 變化는 形式的 「樣式」의 探究가 아니라, 皮相의 外形의 모방이 아니라, 純粹한 精神的 生活의 創造가 뒤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建築家는 建物을 Monument로서가 아니라 合目的인 人間의 生活의 容器로서 생각하여야 하며, 現代生活의 特色을 受容, 吸收할 수 있는 基礎的 條件을 創造하는데 使命感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自己自身の 才能을 爲해서 Monument를 創造하려는 偽善的인 意圖는 [生活속의 建物]이 아니라 [建物속의 生活]을 人間에게 強要하는 것이 되고만다. 作家의 個人的 情趣의 成果나 流行 樣式의 先入觀에 사로잡힌 形態에 對한 Idea는 建物속의 生活를 適用케 하는 人間權利의 剝奪이며, 人間의 自然的 活動을 妨害하는 것이다. 住宅의 目的은 家庭이라는 縮小된 社會의 各構成員의 Privacy가 우선적이어야 하며, 그들의 共通된 生活空間의 有機的이며, 效果的이고, 合理的인 配慮가 重要한 要素가 됨은 勿論이다. 人間은 自然의 혜택을 平等하게 받을 權利가 있는 것이다. 自然의 따뜻한 햇빛을 받을 權利가 있으며, 新鮮한 空氣의 呼吸, 自然的 活動의 空間을 차지할 權利가 있는 것이다. 우리 的 建築은 지난날의 建築의 繼承도 아니요, 오늘 的 特定人의 業績도 더욱 아니며, 後世에 물려줄 遺産古跡이 分明히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周圍에는 성급하게 나날이 치솟는 高層建物이나 구석구석 매워가는 집들은 과연 그 空間에서 生活하는 人間을 爲한 目的과 用途에 合理的인 것이며, 그들의 權利를 擁護하는 것이었으며, 혹시 어떤 特定人만의 權威나 業績, 宣傳을 爲한 外形의 表現이 아니었나 疑問을 갖게 되는 것이다. 人間의 知慧가 아무리 發達되어도 宇宙時代에 사는 오늘날에도 역시 自然의 攝理를 拒逆할 수 없는 것이 또한 建築인 것이다.

- 우리의 建築은 真正 (生活을 爲한 建築) 이었나? -

全時代를 통해서 볼 때 새로운 建築의 開拓者는 「生活을 爲한 Design」이란 全體의 問題에 새로운 組織의 發

- 建築主 -

建築家는 建築主의 意圖를 반드시 그대로 反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建築家는 그들 建築主의 意圖하는

要求를 吸收, 受容한 생각을 建築家 自身에게 理解, 消化시켜야 한다. 建築主가 無意味하고 非合理的이며, 非科學的이며, 趣向爲主의 要求를 할 때, 그들의 이러한 漠然한 夢想在 內包한 要因이 實際로 必要한 要素를 潛在하고 있나 없나의 可否를 診斷하고, 또한 實現可能性을 檢討한 다음 全体的으로 建築主의 꿈과 實際와의 兩立의 方向으로 成立시켜, 實現不可의 點과 非合理的인 夢想의 理由等을 建築主에게 마음으로부터 充分히 納得시키는데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絶對로 自暴自棄를 하여 順從한다거나 自己만의 意圖를 固執해서도 안된다. 結局 建築家는 自己能力껏 끝까지 建築主가 必要로 하는 것에 對해서 精誠껏 診斷을 해야 하는 것이다. 人間은 病이 났을 때 醫師를 指導하지 않으며, 順從할 뿐이다. 患者는 醫師에게 病狀을 傳達하여 醫師의 診斷에 依한 處方에 服從할 뿐이다. 醫師가 患者나 社會의 尊敬과 신뢰를 받는 것은 오직 人間의 生命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天職에 對한 신뢰에 基因하는 것이다. 우리 建築家가 신뢰를 받는데 充分한 資格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하루 速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爲하여 建築家는 建築家라는 天職으로서 社會活動에 參與하여야 하는 것이다. 建築에는 確信과 指導가 必要하다.

建築은 建築主나 政治家나 世論에 依해서 左右되지 않으며, 決定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 建築家는 이러한 社會的責任과 權利를 回避한다거나, 他人에게 미룬다면, 그것은 自身の 社會的 位置와 存在性을 否認하는 것이 되며, 社會的 不信만 招來하는 것이 되고, 結局 建築家라기 보다는 技術을 傳達하는 普遍的인 技術人에 不過하다고 하겠다.

- 建築家는 社會的 指導者이며 奉仕者이다 -

人間이면 누구나가 社會의 構成員의 一員으로서 相互交涉하며, 相互刺戟하여 社會一域에 寄與함에 삶의 보람을 찾으며, 그 結果로 生을 營爲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建築家도 그 例外는 아니라 하겠다. 作家의 作品活動에도 그 代價를 受容함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聖職者가 그의 使命에 社會的代價를 앞세우지 않으며, 藝術家가 그의 作品의 社會的代價에 不平하지 않았으며, 天職이란 仁術의 代價에 醫師들이 使命感을 忘却 한다면 社會의 倫理, 道德的 糾彈을 免치 못함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우리 人間社會에 藝術의 으로 큰 貢獻을 할 有名한 藝術家中에는 極心한 生活苦를 겪은 사람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歷史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社會에 對한 不平不滿을 했다는 것을 들은 일이 없지 않은가? 오직 그것은 그들의 天職에 對한 使命感에 基因된 것이라 생각된다. 建築家는 奉仕者인가? 또는 指導者이어야 하는가? 人間生活을 爲한 天職이란 面에서 指導와 奉仕는 相互關係가 存在해야만 한다. 眞正

한 建築家는 社會構成員의 一員이란 面에서 個個人 에게 마음으로부터 奉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同時에 確信과 信念으로 指導의 義務와 責任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建築主와 建築을 이룩하는데 從事하는 사람들을 絶對적으로 指導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天賦的인 指導의 技術을 必要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對한 指導, 奉仕한다는 強力한 信念과 覺悟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역시 [建築家는 指導者이며, 奉仕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오로지 建築家에게는 滅私, 奉仕 指導만이 있다는 것인가? 간혹 우리 周圍에서는 自己의 本然의 義務, 責任, 使命感을 忘却한 나머지 虛榮, 嫉妬, 不義에 仰合되는 作家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人間의 弱點이며 그들의 確固한 人生觀과 哲學에 基因된다고 보겠다. 作品活動을 生活手段의 方法으로 轉落시키는가 하면 自己宣傳을 爲한 方法으로 世論의 嗜好品으로 作品을 造作한다든가, 責任回避症에서 오는 CASE BY CASE 라는 作家의 精神의 奇型性은 作品의 藝術性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러한 現狀은 우리의 重大한 課題라 아니할 수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自己의 創造的 Idea의 實現을 무엇보다 重要視하는 참다운 建築家는 作品 活動을 生計를 爲한 方法으로 全的으로 依支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겠다. 그러한 哲學만이 建築의 藝術性, 建築家라는 天職, 社會的 신뢰 등을 立証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反面에 自己의 技能과 知識을 要求하는 社會의 어떠한 一部領域에서 從事하면서도 人間生活을 爲한 “새로운 Approach”를 恒常 研究, 創作하는데 努力을 하여야 하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相互協力, 相互刺戟하여 그들의 目的을 成就하는데 우리의 社會的 使命이 거기에 있으며 建築家의 社會的 신뢰성과 指導, 奉仕者로서의 社會的 認定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만이 健全하고, 燦爛한 社會文化가 이룩될 것이다. 이러한 結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建築家의 참된 奉仕와 참된 指導의 結果라 하겠다.

訂正 韓鎬燮氏의 「建築有感」 4에서
 지난 2月号(通卷 73号) P. 51 中에서 右段 下에서 23, 24
 National Architecture Style를 International Architecture Style 로
 下에서 17줄의 Locatity를 Locality로
 P. 52中에서
 左段 上에서 6 줄의 1960年代를 1910年代로
 右段의 下에서 13줄의
 mass-Communication은 mass communication으로 誤植하고 訂正함.